

from 지도자

Spring, 1982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Leader (Semel)

Korea Bible Club Movement

- ④ 이 사람을 보라 -

"S. A. Moffett, "The Seminary's First Founder""

신학교 최초 설립자



마포 삼열목사

글쓴이 : 박 용규 목사

(본부위원, 성도중고교이사장)

약력

- 1864년 1월 25일 미국 인디아나주 메디슨시에서 출생.
1884년 하버드대학 졸업
1884년 한국 선교사 허락
1890년 1월 25일 서울에 도착
1890년 8월 첫 순회 시작
1890년 예수교 학당 세움(서울)
1893년 ① 평양에 도착 ② 평양에서 22인의 학습 교인 및 7인의 세례 교인을 세우심.
1897년 중실중학 설립(평양)
1901년 ①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 수여, ② 평양신학교 설립.
1907년 ①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 한국 대표로 참석하고 부회장으로 피선.

- ② 한국 장로교 독노회 초대 회장으로 피선.
③ 105인 사건.
④ 숭실대학 설립(평양)
1919년 ① 3·1 운동 사건
② 장로교 제 8 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피선.
1918년 - 1928년 숭실 전문학교장으로 시무.
1930년 선교 40주년 기념식 거행
1936년 귀국(미국으로 돌아가심)
1939년 10월 24일 캘리포니아주 몬도비아에서 75세로 별세.

1. 한국 선교사로 오기까지

마포 삼열 목사는 평안도 교회의 창설자이며 한국 교회 목사들의 아버지이다. 이는 과연 한국교회의 창설자요 우리 교회에 공로자이며 우

리 민족의 역사상에서 외국인으로
빼어 놓을 수 없으리 만큼 한국 전
민족의 개혁자이다.

목사는 1864년 1월 25일에 미국
인디아나주 메디슨시에서 출생하였
으니 이가 바로 한국 교회의 아버
지요 공로자이다.

이는 어려서부터 두뇌가 명철하였
고 자라날 때도 지혜로웠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한편
그의 선조들이 미국 개척자인 청교
도들의 뒤를 따라온 신앙인의 조상
및 가족인고로 그 영아시의 마음을
신앙심으로 인도하는데 많은 도움
이 되었던 것이다.

1884년 그가 20세 되는 해에 미국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였고 24세에
시카고 시의 맥코밀 신학교를 졸업
하였으며 1888년 그의 24세에 모교
하버드 대학에서 문학석사 학위를
수여받았고 1901년 그가 37세에 미
국 프린스頓 신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 교회 역사 중 역시 빼어놓을
수 없는 배위량 목사, 이길함 목사,
소아론 목사들은 그와 신학교 동
기 동창이다.

목사께서 한국 땅의 선교사로 오
려고 계획한 때는 그가 신학교 3학
년 재학중이요, 그의 나이 23세의
젊은 청년으로 그는 반석과도 같은
신앙심을 갖었던 것이다.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자 곧 미국

복장로교 선교부에 선교사로 파송
되기를 요구하였으니 당년 24세였다.

그가 당시에 젊은 신앙심으로 선
교부에 요청하였을 때에 선배목사들
은 너무나도 감격 감화에 넘치었다.
이렇게 용모가 준수하고 신앙심이
강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젊
은 목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
셨으니 이것은 곧 한국 3천만인의
영혼을 사랑하심과 같으신 것입니다.

그가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던
선교의 해, 1889년 4월 15일에 한
국 땅을 그의 등에지고 복음의 씨를
뿌릴 사명을 받았으니 이는 곧 한국
땅의 선교사가 되는 인증이었다.

1889년 12월에 정든 모국을 떠나
고, 1890년 1월 25일에 한국에 도
착하니 이 날이 바로 목사의 뜻깊은
26돌의 생일날이니 그의 마음에 어
찌 주님 앞에서 감사드리지 아니 하
였으리요.

이의 마음을 돌이키고 천국 말씀
을 모르는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친
히 보내 주셨고, 이 땅위에 말씀의
씨를 뿌리게 되었으니 이 모두가 하
나님의 크신 섭리가 계심이다.

처음 3년간은 서울에 정착하여
한국어 공부도 하고 지방 순회도 하
면서 모든 준비를 하다가 1893년 선
교 중심지를 평안남도 평양에다 정
하고 본격적인 선교사업 및 전도사
업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2. 평양을 중심으로 선교한 마 목사

1893년에 이미 그의 선교 중심지는 평양에 자리잡았다.

이는 이미 서울에는 언더우드, 아펜셀라와 여러 명의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양을 선교의 중심지로 정한 후에 이미 만주에서 로스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한국 최초 전도사 백홍준과 1907년 평양 신학교 제1회 졸업생 한석진과 1886년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할 때 12세된 어린 소년으로 쪽복음 성경 3권을 주어 들었던 최치량 등을 그의 전도사업에 안내자 겸 협조자로 세우고 이들과 같이 평양을 중심하여 범두리까지 전도하기 시작하였다.

1893년 그의 29세 젊은 선교사가 몇년간 전도한 열매로 22인의 학습교인과 1894년에 7인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온 후 최초의 결실이었으니 이 열매가 후에 한국교회의 전체를 담당하리 만큼 위대한 목사들이 되었던 것이다. 이들 세례 교인은 이 전에 몇몇의 한국교인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던 분이었다.

1894년 첫 7인의 세례식과 성찬예식을 행하였고, 후에 평양 널다리골 교회가 세워지니 이것이 한국에

와서 첫 교회시작이다. 후에 이 교회 이름이 바뀌어 장대현 교회라 불리워졌다. 이 교회가 길선주 목사가 시무하던 교회요, 1907년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교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낯설은 타국 땅에 와서 많은 전도사업을 하며 교회를 세우고 1936년 제2의 고향땅이며 자진하여 씨뿌려 결실맺은 이 땅을 떠나기 까지 46년간 한국 땅에서 20여만의 성도와 1,500여 교회가 선 것을 보았으니 이는 참으로 한국인 영혼의 개척자이고 한국 교회의 아버지가 된 것이다.

목사는 조금도 쉬지 않고 말을 타고 혹은 도보나 배편으로 평지나 험한 길이나 농어촌을 막론하고 피곤한 몸을 끝까지 끌면서 전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 땅위에 많은 신도와 교회를 세웠으니 참으로 그 젊은 청년목사의 신앙심에 감복 아니할 수 없었다.

그의 선교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사경회를 열고 성경을 가르치었다. 도 사경회, 지방 사경회, 개 교회 사경회 등으로 사경회에서 많은 신도를 얻었다.

둘째 병원, 고아원, 양로원을 세우고 자선사업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셋째, 국민학교(당시 소학교), 중학교, 전문학교, 신학교를 세우고

교육사업으로 전도를 하였고 한편 지도자를 양성배출하여 간접 전도에 많은 일꾼을 얹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평양시를 한국의 예루살렘 성지로 꾸미려 하였으며 가는 곳곳마다 좋은 위치에는 미리 미리 땅을 사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였다.

1890년에 시찰하려고 평양에 가서 된 일이었다. 영국에서 온 기일 목사와 평양 시내를 순행하는데 불량 배 몇명이 그들의 앞에 와서 눈이 챙 노랗고, 코가 크고, 키가 말키며 양코백이라고 놀리면서 이 안경을 타고 다니는 놈들아 하며 야유하였다 한다. (안경은 당시 자전거의 유행어) 또 한편 하루는 평양에 와서 장대현 교회로 예배를 인도하려고 가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돌이 날라와서 그의 턱을 갈겼다. 이 때에 그 턱에서는 피가 많이 흘렀으며 병원에서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완쾌된 후에도 턱에는 보기 흥한 큰 흠이 생겨서 내내 그 상처는 남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목사에게 작난한 자는(평양에 깡패이며, 깡패 두목이고 불신 가정에서 자라났다.) 한국 장로교회 제1회 목사인 이기풍 목사가 예수 믿기 전에 불량하여 했던 작난인데 후에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 1907년 평양 신학교에 제1회 졸업생이 되었고 한국 장로교회 초대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목사가 되어 제주도 파송 선교사가 되었고, 목사가 1930년 선교 40주년 기념식전인 평양 중실대학 강당에서 전국 교회 대표, 평양성내 50여교회 신도와 중실, 중의, 중실전문학교, 남녀 고등 성경학교 학생과 7,500여 명이 모인 장소에서 마포 삼열목사가 친히 말씀하였고, 이 때에 역시 이기풍 목사가 축사하며 “마 목사의 보기 흥한 상처는 내가 한 것입니다” 하면서 신앙고백 겸 축사 중에 끼어서 친히 말하였다.

이려고 보니 선교할 때에 많은 고생과 환난이 닥친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에 그의 턱이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목사는 1906년 한국 장로교 독노회에서 제1회 회장이 되었고 1912년 장로교 총회를 세우는데 노력을 하였으며 1919년에 한국 장로교 제8회 총회장으로 피선 되었던 것이다.

3. 교육 사업가로서의 마 목사

1890년 예수교 학당을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니 이것이 경신학교의 모체가 되었다. 1897년에 중실중학교를 세우고 1907년에도 중실전문학교를 세우고 교장 겸 교수로 있었으며 중의여자 중학교도 세우고 이사장으로 있었다.

이는 과목 중에서도 꼭 성경과 목

을 필수 과목으로 택정하여 배우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보게 된 것이다. 다른 교파에서는 일본 정부의 말대로, 학교 제도 등을 개편하였지만 목사님만큼은 그렇게 개편치 아니하고 5년제를 계속하여 잡종학교 밖에는 안되었다. 중학교를 졸업하여도 일본으로 유학 할 수 없었고 다른 상급학교에 진학 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많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찼었다. 그러나 목사는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공부케 하여서 진학시키려고 애썼다. 몇 해 후에 목사가 애쓴 효과는 나타났다. 목사는 그 당시 충실 중학교, 충실전문학교 교장과 이사장으로 있었다.

-이렇게 초대 한국 교회에서는 교육열이 대단하였다. 교회를 세우면 그 옆에 국민학교를 전립할 줄도 알았다. 평안남북도에 교회가 세운 학교가 800여 곳이 있었다.

각 학교장들은 선교사들이 명령하였고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다. <채필근 목사가 크리스챤 신문에 1964년 1월 18일 보도, 내가 본 마포 삼열에서> 마포 삼열 목사가 무려 100여 학교의 교장과 이사장으로 있었다는 것을 본다면 그 얼마나 교육사업에 큰 공이 있었고. 노력가였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많은 학교를 세우고 가르친 교

육가이기도 하다.

4. 신학생 365명을 졸업시킨 초대 교장

1901년 미국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니 당년 36세의 젊은 신학자다. 36세의 젊은 신학자는 미국 땅인 평양에서 장로교 신학교를 건립하고 1925년 까지 24년에 걸쳐서 18회 졸업생을 탄생시켰으니 그 수효는, 365명 이었다.

평양 신학교가 1939년 34회의 졸업생을 내고 신사참배 거부문제로 학교가 폐교할 때까지 생도수는 모두 805명이고 술한 신학교 졸업생 중 거의 반수가 마포 삼열 목사의 졸업장을 받았으며 친히 교수를 받았으니 그 어찌 그의 신앙에 본받은 바가 없겠습니까? 목사 감화와 신학교 내에서 교제한 졸업생 중에 제 1회 졸업생 중 계시록을 만독하고 평서노회에서 사경회 하다가 임종하신 길선주 목사, 제 2회 졸업생이며 한국인으로 첫 총회장이었고, 제 4회 한국 총회장인 김필수 목사, 제 3회 졸업생이며 이적의 부홍사라고 불린 제 9회 총회장인 김익두 목사, 제 6회 졸업생이며 제 7회 총회장이며 성경학자 김선두 목사, 제 7회 졸업생이며 교회를 세운 「예수천당」의 최봉석(일명 최권능) 목사, 제 8회 이자익, 제 10회 이인식, 제 13회 배은희 목사는

다 총회장을 역임했다. 제15회 남궁혁 목사는 한국 최초의 신학자이며 신학교 교수이었다. 제16회 함태영 목사는 제12회 총회장 이었고 대한민국 3대 부통령이었다. 이렇게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를 양성하여 배출하였으니 어찌 한국 교회의 아버지라 아니하겠는가!

목사는 한편 겸손과 사랑의 목사이었다. 한국에 있던 선교사 중에서도 마 목사처럼 한국 교인의 사랑과 흡모를 받은 이도 많지 않았다. 그는 항상 겸손과 사랑으로 한국 교인을 대해 주었고 가르쳤기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의 권능을 확신하고 무슨 일이나 의심치 않고 실천하는 것을 신학생들에게 몸소 실천 실행하여 보여 준 것이다. 이와같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웠고 겸손, 사랑, 믿음을 철저하게 배워 가지고 나갔으니 한국 교회가 퉁퉁히 서지 않았겠느뇨?

5. 독립 운동에 협조한 마목사

1911년 한일 합방이 체결된 이후 1912년에는 105인 사건이 일어난 해인데, 이때 105인 사건의 관계자 중 약 9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을 억압하고 그 지도자들을 체포하며 동시에 선교사들을 축출하여 한국 통치

(당시 조선 통치)에 구애됨이 없이 하자는 것이 일본인의 주된 목적인 것이다.

합방된 이듬해 일본 통치 43년 12월 28일에 압록강 철교 준공 축하식에 있어서 27일, 28일 양일 간을 이용하여 역선 간역에 출영 나가는 군중 속에 숨어 들어서 저들은 살해하려던 음모가 발각 되었다고 일본이 조작하여 허무맹랑한 트집을 하여 105인은 수개월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들 기독교 인사중 윤치호, 이승훈은 징역 10년, 양전백 목사는 징역 6년, 길진형은 징역 5년에 언도를 받았던 일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시에 마포 삼열 목사는 제일선에 나서서 이들을 구출할 운동을 하였던 것이다. 사내 총독에서 제출하였던 각서 일부를 본다면, 「우리는 교회 역원급 교사에게 권세의 복종을 가르쳤고 교회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진정하여 그들을 출옥시키기를 선교사 마포 삼열, 언더우드, 윤산온이었으며, 또 미국 장로교, 외국 전도국에서 워싱턴 주재 일본대사 진전자작에서 보낸 서신을 본다면 「한국(당시 조선)에 있는 일본 관헌들이 한국(조선) 기독교인을 체포하고 그들을 혹대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히 상의를 거듭했다」 신학박사 마포 삼열, 윤산온, 위대

모, 리부열 목사 등이 이렇게 백방으로 국내 국외에서 우리 105인 사건의 여론을 일으켰고 구출 운동을 열렬히 시행하였던 것이다.

1919년 3월 1일에 마포 삼열 목사는 평양에서 역시 이 운동에 후원하였다. 이러한 혼란시기에 목사가 한 일들을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신사참배 문제가 1935년 일어나자 한국교회의 징계를 근심하며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1936년 귀국하여서 세계에 호소해 보려고 하였으나 뜻하지 않게도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 있다가 1939년 10월 24일에 캘리포니아주 몬도비아에서

75세를 일기로 운명하였다.

아! 한국 교회의 대 공로자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 마 목사는 한국 땅을 떠나 본국에서 세상을 떠났으나, 그는 하나님 품 속에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한국 교회의 발전과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을 것이다.

그후 그의 아들 마포 삼락 목사도 아버지가 세운 신학교이던 장로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81년 은퇴하셨다. 목사는 갔으나 그의 업적은 한국교회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



마포삼열 박사의 자부 마애린 제3 대 본부장과
·창설자 권세열 박사와 현본부장, 총무(1981. 5.)

□ 논 단 □

청소년 성경구락부

지도자의 학생이해와 지도 방법

(창립 52주년 기념 귀국 지도자 수련회 강연)

권 세 열 박사

(창설자 겸 명예 본부장)

성경구락부 사업이 서울, 울산, 부산,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산아동”이란 계급이 없어질 때에 성경구락부 사업도 없어지지 않겠나 하고 미국에서부터 생각을 했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활성화되어 가는 성경구락부의 사업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구락부

구락부의 본래의 뜻은 집단, 영어로는 Group이라고 합니다. 집단생활이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룹 다이나믹스 즉 집단폭력단이라는 것을 이제야 다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생활의 80%가 거의 집단생활을 합니다. 가정생활 역시 집단생활이며 각 사람들에게 매우 큰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생활에서도 교육하는 것은 집단생활하는 것에 관계가 있는 것이고, 사회에 진출해서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인격을 갖추는 가운데 집단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청년들이 군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집단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 날까지 완전히 집단생활로 지상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곳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중에 외딴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고, 자기 나름대로의 수양과 목표를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그러나 원만한 인격 형성은 집단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신앙인의 인격은 기독교 단체 생활의 원만한 길로 예배, 교제, 교육, 봉사를 할 때 원만한 인격을